

외식조리 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분석  
- 충청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

나 태 균<sup>1)</sup> · 문 성 원<sup>¶</sup>  
영동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sup>1)¶</sup>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rofess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rt Majors  
- Focus on the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

Tae-Kyun Na<sup>1)</sup> · Sung-Won Moon<sup>¶</sup>  
Dept. of Hotel & Foodservice Culinary Arts, Youngdong University<sup>1)¶</sup>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support of professors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students who specialize in foodservice & culinary art.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consisted of 250 students from the departments related to foodservice and culinary art of the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Chungcheong province. A total of 217 responses out of the 250 questionnaire were analyzed without the 33 incomplete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professors'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Second, it shows that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when the social support of the professors is related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refore, the career education based on emotional, informational, material, and appraisal supports of the professors probably play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the students majoring in food service & culinary art.

**Key word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odservice & culinary major

I. 서 론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이후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체감 형성과 직업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다(Blustein DL 1987).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입학 후에 전공학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며 향후 자신의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내적 세계와 외적 환경을 탐색하고 이후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체감 형성과 직업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이다(Blustein DL 1987).

진로에 대해 심한 갈등, 불안,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Jang BS 등 2010). 이러한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는 대학 생활적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KW · Cho YH 2011).

또한 최근 한 대학의 신입생 설문조사에서는 전공학과 교수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진로 및 취업지도(46.5%), 충실한 전공지도(31.3%), 대인문제 상담 및 대화(14.1%)의 순으로 나타났다(교수신문 2011년 6월 9일자). 이러한 측면에서 Song BK(2004)은 전공 학과 차원의 진로지도교과목개설(25.8%)과 학과 교수의 진로지도 강화(22.2%)가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진로 계획 및 준비와 연관된 학교 내의 선호되는 교내기관으로 학교교수(46.6%), 진로지도교과목 담당교수(24.4%), 진로지원팀(18.3%), 학생상담센터(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로지도에서 전공 교수의 역할은 타 전공과 같이 외식조리전공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외식조리 전공분야는 인적자원의 과잉공급 및 우수한 인적자원의 부족(Choi IS · Hong DY 2002), 외식조리전공 분야의 낮은 직업가치에 따른 기피현상(Kim JH · Chun BG 2007; Ko DW · Chun BG 2003)이라는 악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식조리 전공자들의 기대치에 부합되는 일자리는 한정됨으로써 실업률과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Choi YH 등 2009). 이러한 현상은 외식조리 전공자의 진로지도가 사전에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경험에 의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Kim JH 2006), 더 나아가 진로선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전공자는 온전히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물론 사전에 외식조리 전공자 개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여 100%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분야로 취업하는 것은 다른 전공을 예로 볼 때 실현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한 외식조리 전공자들의 이직 및 전직은 비전공분야의 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대학생활에서 주변사람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DuBois DL et al 1994). 이러한 시점에서 진로과정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밝혀진다면 보다 유용한 진로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Brow SD & Lent RW 1996).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현진 2009; Park MK 등 2008)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주요 사회적 지지자는 부모 보다 전공 교수와의 사회적 관계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로변인 중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최근 사회적 지지와 함께 진로결정을 예측해주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Kim KW · Cho YH 2011; Yang JH · Kim BW 2008; Lea E K · Lee H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조리전공자를 대상으로 첫째, 교수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식조리전공자의 진로지도에 있어 교수의 역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며, 특히 진로와 관련하였을 때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Betz NE 198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러한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Lee HR · Song JY 2004).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학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정도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Kim HJ · Jang YK 2011).

Blustein DL(1987)은 인생 전체에서 일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의 수행 시에 개인적 지지가 중요함을 논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대학생은 깊이 있는 진로탐색행동을 하는데 자유로움을 느끼며, 진로선택을 더 잘 준비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 등과 같은 진로관련 변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현진 2009; Cho MS · Choi KS 2007; Gushue GV & Whitson ML 2006; Kim JS 등 2006). 이처럼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 A(1977)의 사회인지이론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될 어떤 상황을 자신이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신념인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한 것이다. 자기효능감을 진로에 처음 적용한 Hackett G & Betz NE(1981)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이라 하여 진로 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과 관련된 개인적 효능감으로 진로발달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언급하였다.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은 인지와 정서의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이는 개인이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BS 등 2010; Kim YM · Hyeon SH 2008; Yang JH · Kim BW 2008; Park JG 2006; Lee KH · Lee HJ 2000). 즉,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과제 혹은 행동을 회피하는 경향을 띄우며,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 대학생은 자신의 진로결정 과제 및 행동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른 진로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HJ · Jang YO 2011; Cho MS · Choi KS 2007). 즉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현진 2009; Cho MS · Choi KS 2007; Gushue GV & Whitson ML 2006; Kim JS 등 2006)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Jang BS 등 2010; Kim YM · Hyeon SH 2008; Yang JH · Kim BW 2008; Park JG 2006; Lee KH · Lee HJ 2000)를 토대로 가설 1, 2, 3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외식조리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정보, 정서, 물질, 평가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외식조리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외식조리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정보, 정서, 물질, 평가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연구(Kim HJ · Jang YO 2011; Cho MS · Choi KS 2007)를 토대로 가설 4를 설정하였다.

가설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외식조리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정보, 정서, 물질, 평가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2. 측정도구

### 1) 교수의 사회적 지지

외식조리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근거로 이현진(2009)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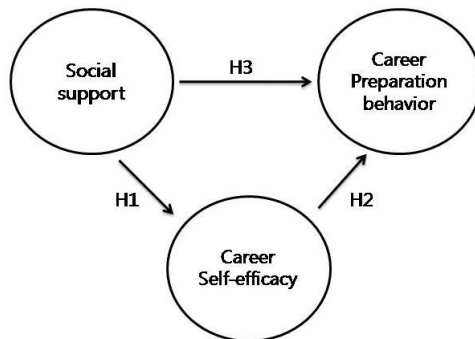
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7문항), 돈 및 물건제공 등 필요시에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물질적 지지(6문항), 문제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6문항),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의 평가적 지지(6문항)의 4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외식조리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 KM & Betz NE(1983)와 Betz NE 등(199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Lee KH · Lee HJ(2000)가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KH · Lee HJ(2000)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2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88로 나타났다.

### 3) 진로준비행동

외식조리 전공자의 진로준비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김봉환(1997), Kopelman RE 등(1992), Stumpf



<Fig. 1> Research model

SA 등(1983)의 연구를 토대로 박완성(2002)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2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범위는 22점에서 1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완성(2002)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9$ 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4$ 로 나타났다.

### 3.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중 학과 이름에 외식 또는 조리가 포함되어 있는 3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가능한 학년 등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편의 표본 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2011년 04월 1일부터 30일까지 1-4학년에 재학 중인 총 25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정규 수업 시간에 설문지를 완성토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17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 SPSS 17.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RM & Kenny DA(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

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Baron RM & Kenny DA(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의 분석방법은 4단계로 거치는데,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둘째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또한 매개변인을 추가했을 때 독립변인의 효과(beta값)가 줄어들고 독립변수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의하다면 매개변수는 부분매개효과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게 변화한다면 매개변수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Mackinnon DP et al 2002).

## IV. 분석결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총 217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성이 138명(63.6%), 여성이 79명(36.4%)이고, 나이는 21세-25세가 137명(63.1%), 20세 이하가 41명(18.9%), 26세-30세가 38명(17.5%), 31세 이상이 1명(0.5%)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은 3학년이 65명(30.0%), 2학년이 60명(27.6%), 4학년이 48명(22.1%), 1학년이 44명(20.3%)으로 조사되었다. 졸업 후 전공분야로의 진출에 대해 그렇다가 81명(37.3%), 보통이다가 76명(35.0%), 매우 그렇다가 33명(1.2%), 그렇지 않다가 20명(9.2%), 전혀 그렇지 않다가 7명(3.2%)으로 나타났다.

### 2. 측정 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교수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구성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법은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138	63.6
	Female	79	36.4
Age	≥20	41	18.9
	21-25	137	63.1
	26-30	38	17.5
	31≤	1	.5
Grade	Freshman	37	17.1
	Sophomore	56	25.8
	Junior	66	30.4
	Senior	58	26.7
Will you work in the your major field?	Strongly disagree	7	3.2
	disagree	20	9.2
	moderate	76	35.0
	agree	81	37.3
	Strongly agree	33	15.2
Total		217	100

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은 각 요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를 실행하였으며, 요인 추출 과정에 있어서는 고유치(eigen value) 기준을 적용하여 1.0보다 큰 변수로 적용하였다. 더불어 설문문항과 요인들 간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값을 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가를 살펴보는 KMO(Kaiser-Meyer-Olin)값은 0.933로 높게 나타났으며(Choi BK 등 2005),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s 구형성 검정 통계 값이 6968.349( $p=.000$ )로 상관행렬이 요인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4개 요인의 측정 문항의 요인 적재치가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로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누적설명력은 80.69%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alpha의 값은 0.974로 나타나 최소 신뢰계수(0.70)를 상회하고 있어 내적 일관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교수의 사회적 지지(정보적,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변수와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변수인 교수의 사회적 지지요인들은 통제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4. 가설 검증

외식조리 전공자가 인지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외식조리 전공자가 인식한 교수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한 1단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수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보적( $\beta=.214, t=3.221$ ), 정서적( $\beta=.144, t=2.137$ ), 물질적( $\beta=.149, t=2.212$ ), 평가적 지지( $\beta=.227, t=3.424$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2단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ocial supports**

	Variable	Mean±SD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Informational support	Professors always help me to overcome any difficult situations.	3.69±1.10	.836	5.413	21.651
	Professors explain to me something I do not know well.	3.57±1.09	.807		
	All the professors are respectable.	3.73±1.14	.789		
	Professors give me advices to make rational decision when I have to make a selection.	3.67±1.12	.777		
	When having problems, professors provide me with helpful information so that I can find the reasons of the problems.	3.78±1.08	.715		
	Professors give me proper advices for understanding the reality and adapting to social life.	3.53±1.19	.708		
Emotional support	Professors always care for and they look after me.	3.38±1.06	.799	5.120	42.131
	Professors make me feel a sense of closeness whenever being with them.	3.40±1.05	.790		
	Professors always listen to my problems carefully.	3.41±1.11	.749		
	Professors are those who I can trust and depend on.	3.40±1.12	.748		
	Professors are always concerned and worried about me.	3.37±1.04	.663		
	Professors encourage me to make a decision when I hesitate.	3.35±1.01	.662		
Material support	Professors spend time with me to talk when I have a problem.	3.20±.99	.864	5.042	62.301
	Professors always let me use the materials which I need.	3.13±.96	.835		
	Professors cover for me when I am sick.	3.09±.98	.798		
	Professors always do their best to help me with whatever it is.	3.10±.97	.780		
	Professors are willing to provide money I need.	3.27±1.00	.695		
	In case of not being able to help me directly, professors help me through other people.	2.95±.85	.675		
Appraisal support	Professors fairly estimate if my behaviors are correct or not.	3.35±1.07	.785	4.598	80.691
	Professors make me feel that I am an important and valuable one to them.	3.46±1.11	.784		
	Professors lavish praise on me when I do a desirable behavior.	3.37±1.05	.736		
	Professors treat me respectfully.	3.34±1.08	.721		
	Professors respect my opinions and usually accept them.	3.23±.96	.611		
	Professors recognize my work in order for me to have self-esteem.	3.14±.91	.601		

KMO test=.933, Bartlett test=6968.349

Cronbach's alpha=0.974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604$ ,  $t=11.127$ ).  
 마지막으로, 가설 3, 4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만 투입한 3단계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variables**

n=217							
	M±sd	IS	ES	MS	AS	CDMSE	CPB
IS	21.977±6.19	1					
ES	23.756±6.75	.789***	1				
MS	19.899±5.31	.698***	.802***	1			
AS	18.756±4.95	.657***	.611***	.618***	1		
CDMSE	87.843±26.79	.214**	.144*	.149*	.227**	1	
CPB	71.765±15.30	.274***	.235***	.293***	.330***	.604***	1

IS: Informational support, ES: Emotional support, MS: Material support, AS: Appraisal support,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PB: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p<.05$ , \*\* $p<.01$ , \*\*\* $p<.001$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tep	Predictor	Criterion	F	R <sup>2</sup>	B(SE)	beta	t
1	IS	CDMSE	10.308**	.046	.926(.288)	.214	3.211**
2	CDMSE	CPB	123.800***	.365	.345(.031)	.604	11.127***
3	IS	CPB	17.501***	.075	.678(.162)	.274	4.183***
4	IS	CPB	67.682***	.387	.376(.135)	.152	2.776**
	CDMSE	CPB			.327(.031)	.572	10.444***
z-value=3.089(p=.002)							
1	ES	CDMSE	4.565*	.021	.572(.268)	.144	2.137*
2	CDMSE	CPB	123.800***	.365	.345(.031)	.604	11.127***
3	ES	CPB	12.585***	.055	.533(.150)	.235	3.547***
4	ES	CPB	67.772***	.388	.342(.122)	.151	2.796**
	CDMSE	CPB			.333(.031)	.583	10.780***
z-value=2.096(p=.036)							
1	MS	CDMSE	4.892*	.022	.753(.340)	.149	2.212*
2	CDMSE	CPB	123.800***	.365	.345(.031)	.604	11.127***
3	MS	CPB	20.203***	.086	.845(.188)	.293	4.495***
4	MS	CPB	73.597***	.408	.599(.153)	.208	3.900***
	CDMSE	CPB			.328(.030)	.574	10.778***
z-value=2.172(p=.03)							
1	AS	CDMSE	11.721***	.052	1.230(.359)	.227	3.424***
2	CDMSE	CPB	123.800***	.365	.345(.031)	.604	11.127***
3	AS	CPB	26.298***	.109	1.020(.199)	.330	5.128***
4	AS	CPB	72.699***	.405	.628(.167)	.203	3.751***
	CDMSE	CPB			.319(.031)	.558	10.307***
z-value=3.275(p=.001)							

IS: Informational support, ES: Emotional support, MS: Material support, AS: Appraisal support, CDM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PB: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p < .05$ , \*\* $p < .01$ , \*\*\* $p < .001$

입한 4단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의 정보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beta=.274,  $t=4.183$ )보다 두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으며(beta=.152,  $t=2.776$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572,  $t=10.444$ ).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의 정보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Sobel test를 한 결과 z값이 3.089( $p=.00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의 정서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beta=.235,  $t=3.547$ )보다 두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으며(beta=.151,  $t=2.796$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583,  $t=10.780$ ).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의 정서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Sobel test를 한 결과 z값이 2.096( $p=.03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수의 물질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beta=.293,  $t=4.495$ )보다 두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으며(beta=.208,  $t=3.900$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beta=.574,  $t=10.778$ ).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의 물질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Sobel test를 한 결과 z값이 2.172( $p=.03$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수의 평가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



치는 영향력이 첫 번째 방정식( $\beta=0.330, t=5.128$ )보다 두 번째 방정식에서 줄어들었으며( $\beta=0.203, t=3.751$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다( $\beta=0.558, t=10.307$ ). 이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의 평가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Sobel test를 한 결과  $z$ 값이 3.275(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외식조리전공자를 대상으로 첫째, 교수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혀냄으로써 외식조리전공자의 진로 지도에 있어 교수의 역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조리전공 교수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하여 외식조리전공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신념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행위적인 노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이현진 2009; Cho MS·Choi KS 2007; Gushue GV & Whitson ML 2006; Kim JS 등 2006)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내고 그 직업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진로상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Jang BS 등1 2010; Kim YM·Hyeon SH 2008; Yang JH·Kim BW 2008; Park JG 2006; Lee KH·Lee HJ 2000)의 연구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식조리전공 교수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는 직접적으로 외식조리전공자의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키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 HJ·Jang YO(2011), Cho MS·Choi KS(2007)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외식조리전공자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학생이 책임감이나 자긍심이 없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나머지 진로교육 활동들은 매우 취약한 일시적 요법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식조리전공자의 개인별 특성 및 진로와 관련된 사고체계나 신념 등을 파악하여 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전공 교수의 다양한 행동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교수의 정서적, 정보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 외식조리전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감 있게 미래를 선택하는데 기여하는 지지적인 기반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과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지역의 외식조리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 대상을 다양한 지역과 학교 형태별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사회적 대상을 본 연구에서는 교수로 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영향력 있는 타인인 부모, 교

우 등의 관계를 비교분석한다면 더욱 의의가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조리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수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 3개교에서 외식조리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25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3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17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교수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수의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를 통한 진로교육을 통해 외식조리전공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교수신문 2011. 전남대 학생, "연구업적보다는 진로 및 취업지도 해 주세요", 6월 9일.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1-161, 서울.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148, 서울.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1-127, 서울.

이현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이

화여자대학교, 1-101, 서울.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 84(2):191-215.

Baron RM, Kenny D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6):1173-1182.

Betz NE (1989).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17(1) :136-144.

Betz NE, Kiein KL, Taylor K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 Career Assess* 4(1):47-57.

Blustein DL (1987). Decision-making and vocational maturity: An alternative perspective. *J Vocational Behavior* 30(1):61-71.

Brow SD, Lent R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 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2):357-366.

Cho MS, Choi KS (2007).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n J Counseling* 8(3):1085-1099.

Choi BK, Ko PS, Cho MS (2005). The behavior of spending money on eating out and the perception of food taste for college students. *J Culture & Tourism Res* 7(1):25-46.

Choi IS, Hong DY (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oks training model: Outside the exiting systems. *J Foodservice Management* 5(2):163-181.

Choi YH, Kim IS, Kim SY (2009). Evaluation of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working and internship abroad: By undergraduates studying

- in culinary and foodservice departmen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2):287-294.
- DuBois DL, Felner RD, Meares H,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 Abnormal Psychology* 103(3):511-522.
- Gushue GV, Whitson ML (2006). The relationship of ethnic identity and gender role attitudes to the development of career choice goals among black and Italian girls. *Am Psychological Assoc* 53(3):379-385.
- Hackett G, Betz N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 Vocational Behavior* 18(3):326-339.
- Jang BS, Choi YL, Lee JH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maturity on consciousn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J Sport & Leisure Studies* 40(1):57-67.
- Kim HJ, Jang YO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support and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Youth Studies* 18(7): 1-32.
- Kim JH (2006). The characteristics of career attitude on the college students specializing in hotel and culinary by personality type. *J Korean Home Econ Assoc* 44(4):49-63.
- Kim JH, Chun BG (2007). Undergraduates' occupation-appraisal: Focus on tourism industry. *Korean J Tourism Res* 22(3):105-123.
- Kim JS, Seo LN, Tak JM (2006).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Human Ecology* 9(4):5-14.
- Kim KW, Cho YH (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 Youth Studies* 18(4):197-218.
- Kim YM, Hyeon SH (2008). The relationship among dance career, career self-efficacy, academic adjustmen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ci Soc Dance J* 17 :1-18.
- Ko DW, Chun BG (2003). The concept and measurement scale of job-esteem: The case of undergraduates majoring tourism studies. *J Tourism Sci* 26(3):279-297.
- Kopelman RE, Rovenpor JL, Millsap RE (1992). Rationale and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or the job search behavior index. *J Vocational Behavior* 40(3):269-287.
- Lea EK, Lee HS (2002).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attitude and maturity. *Korean J Counseling & Psychotherapy* 14(1):109-120.
- Lee HR, Song JY (2004).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career explora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Counseling Study* 5(2): 393-407.
- Lee KH, Lee HJ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Counseling & Psychotherapy* 12(1):127-136.
- Mackinnon DP, Lockwood CM, Hoffman JM, West SG,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7(1):83-104.
- Park J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dance students. *Korean J Sport Psychology* 17(3):47-60.
- Park GW, Lee KH (2007).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self-efficacy.

- Korean J Counseling & Psychotherapy* 19(2): 409-422.
- Park MK, Kim YS, Lee HR (2008). A structural analysis of anticipated social supports, self-identity,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of woma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enter. *J Vocational Edu Res* 27(2):1-26.
- Song BK (2004).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reer guidance in SOONCHUNHYANG university. *Soonchungyang J Institute Humanities* 13:89-117.
- Taylor KM, Betz N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indecision. *J Vocational Behavior* 22(1):63-81.
- Yang JH, Kim BW (2008).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 Vocational Edu Res* 21(2):57-71.
- 
- 2012년 01월 10일 접 수  
2012년 02월 06일 1차 논문수정  
2012년 02월 15일 2차 논문수정  
2012년 02월 20일 게재확정